



외국인·기관 순매수에 코스피 상승

글로벌 IB, 메모리 호황 지속 전망

블랙록의 한국 주식 ETF, 지난주 사상 최대 규모 자금 유입

주요 지표 일간 변동

KOSPI	KOSDAQ	KOSPI200
6,747.95pt (+3.56%)	753.34pt (+0.49%)	1,073.39pt (+3.96%)
달러-원 환율	韓 10 년물 국채 금리	S&P500 선물
1,474.70 원 (-3.2 원)	4.3650% (+2.9bp)	7,522.50pt (+0.51%)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주요 수급 동향

	KOSPI	KOSDAQ	KOSPI200 선물
개인	-16,421 억	+1,449 억	+1,687 억
외국인	+3,086 억	-1,350 억	-8,444 억
기관	+13,743 억	-144 억	+6,000 억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KEY DRIVER

- 금일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반등했습니다. 주요 글로벌 IB는 메모리 호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시각과 함께, 이번 조정으로 디레버리징이 상당 부분 마무리됐다고 평가하며 메모리 반도체 및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지난주 블랙록의 한국 주식 ETF가 사상 최대 규모의 주간 순유입액을 기록했다는 소식 또한 투자심리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이날 KOSPI는 3.56%, KOSDAQ은 0.49% 올랐습니다. KOSPI 거래대금은 약 24.5조원, KOSDAQ은 약 4.6조원을 기록했습니다.(KRX 기준)
- 외국인은 KOSPI를 3천억원 이상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5천억원 가까이 순매수한 반면, SK하이닉스를 4천억원 가량 순매도했습니다. 기관은 KOSPI를 약 1.4조원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삼성전자를 약 5천억원, SK하이닉스를 약 7천억원 순매수했습니다.
- 업종별로 살펴보면, 반도체 BIG2가 반등하면서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자회사 지분 가치가 부각되면서 삼성물산과 SK스퀘어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부를 신설한다는 소식에 관련 산업 성장 기대감이 높아지며 로봇주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반면, 바이오 업종 전반이 투자심리가 악화되면서 하락했습니다.
- 주요 종목 중에선 레인보우로보틱스(+9.73%), 삼성전자(+6.15%), SK하이닉스(+4.08%)가 올랐고, 코오롱티슈진(-29.90%), 알지노믹스(-12.52%), S-Oil(-3.48%)이 내렸습니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항목은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항목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